즉시 배포용: 2016 년 10 월 19 일 **ANDREW M. CUOMO** 주지사

CUOMO 주지사, 뉴욕주 공무원연맹과 3 년 협약 체결 발표

Andrew M. Cuomo 주지사는 오늘, 주 정부가 뉴욕주 공무원연맹(Public Employees Federation, PEF)과 3 년 노동협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습니다. PEF 는 미국 최대 노동조합 중 하나이며 뉴욕주에서 두 번째로 큰 규모의 공무원 노동조합으로서 54,000 명의 노동자가 가입되어 있습니다.

Cuomo 주지사는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협력적인 교섭을 통해 주 정부는 PEF 와 고용 협약에 관한 합의에 도달했습니다. 우리 공무원들은 뉴욕주가 원활히 기능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들의 뛰어난 공헌은 계속해서 우리 주의 전진에 기여할 것입니다. 이번의 새 협약은 공공근로자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우리 주 납세자들을 위해 마땅히 지켜야 할 재정적 규율 사이에서 적절한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는 뉴욕주의 뛰어난 공공 인력을 유지하기 위한 노력에 있어 중요한 진전이며, 저는 앞으로 여러 해 동안 지속적인 협력을 고대합니다."

Wayne Spence PEF 대표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번 협약과 관련하여 많은 협력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신 주지사와 그의 보좌진, 그리고 GOER (Governor's Office of Employee Relations) 협상 전문가들께 PEF 조합원 54,000 명을 대표하여 감사드립니다. 특히, 지난 2 년간 지치지 않고 열성적으로 이 협약안을 준비하신 PEF 협약팀 구성원들에게 가장 감사드립니다. 협약팀은 이번 협약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으며 현재 PEF 집행위원회의 인가와 PEF 조합원들의 비준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 참여한 것을 자랑스럽게 생각하며, 이번 3 년 협약의 비준을 고대합니다."

이번 3 년 협약에는 2016-17 년 2%, 2017-18 년 2%, 2018-19 년 2%의 임금 인상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주 정부와 PEF 모두 통제불능의 의료 비용 절감 계획을 함께 수립하는 데 동의하고 있습니다. 본 협약의 다른 내용들은 곧 공개될 예정입니다.

이 협약은 집행위원회의 승인과 조합원의 비준을 거쳐야 합니다.

###

다음 웹사이트에 더 많은 뉴스가 있습니다: www.governor.ny.gov
뉴욕주 | Executive Chamber | press.office@exec.ny.gov | 518.474.8418